



농약문제는 매스컴이 발견한 역새플인가?

‘유익성’ 우선시 하는 넓은 시야 가져야

사용방법 잘못되면 의외 일 발생, ‘매스컴=화학약품’ 등식 성립

金田武明

골 프장에 사용되는 농약이 공해를 야기시키고 있다는 보도가 작년 여름경부터 성행하여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다. 한마디로 농약이라고 해도 여러 종류가 있는 것도 문제를 복잡하게 한다. 아무래도 그 취급에는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고, 이 문제에 대해 골프계 전체에서도 신중히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은, 무책임한 매스컴의 보도와 “매스컴은 양날이 달린 칼을 들고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다. 사용하는 방법이 잘못되면 뜻하지 않은 일이 일어난다는 면에서는 매스컴도 화학약품과 비슷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로 생각해 낸 것이 10년전의 나라다씨 연설이다. 호텔 윗층에서 개최된 파티에 내외신기자가 많이 모였다. 연설이

끝나고, 한 사람의 기자가 이상한 질문을 했다. “소니가 일본 뿐 아니라 세계를 전자제품화한 것에 대해 죄책감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는 취지였다. 일본쌀의 무역마찰 문제가 주제인 연설에 대한 이 질문은 그 순간 좌석의 흥이 깨질 정도로 엉뚱한 것이었다. 盛田昭夫씨는 웃으면서 “당신은 이 20층 회의장까지 어떻게 올라왔습니까?”하고 가볍게 받아 넘겼다. 그 기자는 “엘리베이터로 올라왔습니다만...”하고 고개를 떨구어 버렸다.

농약문제도 이것과 유사한 점이 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먹고 있는 물과 마찬가지로 동경의 물은 맛이 없다든지, 냄새가 난다든지 하는 말들을 하지만 일상 생활속에서는 소독한 물을 늘 마시고 있다. 그러나 이 물에는 살균제로서 염소가 사용되고 있다. 제1차 세계대전 때 염소가스가 비극을 일으

킨 이야기를 우리들은 어려서부터 자주 들었다. 그 염소가 도시 수돗물 속에 0.3ppm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숫자 이하가 되면 여러 가지 세균이 죽지 않기 때문이다. 도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어항 속에 수돗물을 넣지 않는다. 0.3ppm이라도 금붕어의 체중에 비하면 많은 양과 같은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에게는 피해도 없고 다행히 축적성도 없어 우리들은 건강하게 살고 있다. 화학약품에는 이러한 특성이 있는 것이다.

골프장 관리에 사용되는 농약이 골퍼와 캐디를 포함한 종업원에게 건강상의 피해를 주고 부근의 주민에게는 하천오염에 의한 공해를 일으키고 있다는 논조는 그저 매스컴의 연구부족을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매스컴에 기대하고 싶은 사항

“골프코스는 도시에서 폐(肺)와 같은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한 R.조즈 Jr.의 의견은 그다지 중요시 되지 않는다. 환경보호의 대선배격인 스코트랜드가 “골프코스를 활용하여 자연보호 정책을 진행하고 있다”고 말한 내용도 매스컴은 일체 다루지 않고 있다. 골프코스가 아름다운 녹음을 많이 제공하고 환경을 좋게 하고 있다는 뉴스 또한 없다. 다만, 저 아름다움을 보존하려면 그 이면에 큰 희생이 따를 것이라는 견해야말로 뉴스거리인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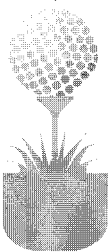
그 때문에 여러 자료가 수집된다. 다만 정

론은 아니다. 골프코스 유해론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수, 의사의 의견이 기반이 되고 있다. 이 유해론에 대한 매스컴의 태도는 교묘해서 그에 대한 아부는 혀를 내두를 정도이다. 그러나 농약문제에 있어서 지금 각광을 떨치고 있는 교수와 안과 의사 두 사람 모두는 사실 그 분야에 있어서는 문외한이다.

농약은 잘못 사용하면 일본전체가 죽은 사람과 중환자 투성이 될 정도로 위험성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농약화학이 있고, 후생성에서도 많은 전문가를 키우고 있는 것이다. 일본 매스컴의 한 가지 특징은 전문가의 눈에는 잘못된 것 투성이고 전혀 신빙성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일반인에게는 올바르게 들리고 설득력조차 갖게 된다는 것이다.

골프장의 농약문제도 냉정히 객관적으로 생각해야 한다. 감정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왜냐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도 농지에 사용하는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하나의 차이는 농지쪽이 압도적으로 사용량이 많다는 것밖에 없다. 즉, 하나의 코스는 18홀로 100만평이 되지만 그 중 살포횟수와 사용량이 비교적 많은 그 린은 2만평이다. 그러나 이 그린의 잔디는 4~6mm의 길이로 안개 때문에 미량으로 살포하면 말라버린다. 보리, 벼의 경우는 초장 4~5cm부터 1m까지 있기 때문에 적어도 100배의 양이 된다.

또한 일본의 전 국토에서 차지하는 골프장과 농지의 점유율을 생각하면 골프장에서 사용하는 농약의 양은 거의 소꿉놀이에 지나지



골프장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면 지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좁은 국토의 경우는 귀중한 휴식공간과 숲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도시의 폐기능”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의 재산”임을 깨달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TV는 이미 여성과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정론이 통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려져 있다.



않는다. 골프장이 농약피해의 근원이라고 말한다면 일본의 전 국토가 죽음의 나라로 되어 버린다는 논법이다.

지난 1월 長野 富士見町 센터에서 名城大의 村田道雄 교수가 농약에 대한 오해를 풀기 위한 강연회를 열었다. 마을 사람 200명이 모인 가운데 지방지의 신문기자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 강연회에 관한 기사는 지면에서 볼 수 없다.

문제는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기사화를 하느냐 안하느냐는 주관적이라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문제가 되는 것은 누구나 농약이 독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에 있다. 개가 사람을 물면 뉴스가 안 되고 사람이 개를 문다면 뉴스거리가 된다는 것이다.

매스미디어로서 일본의 신문은 지나치게 지면 경쟁보다는 발행부수의 경쟁에 급급해 있다. TV는 이미 여성과 아이들의 전유물이

되어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는 정론이 통하기 힘들다는 것은 알려져 있지만 그나마 프레온 가스를 보도할 때만큼의 세계적인 시야가 요구되는 것이다. 지금의 농약문제 보도는 골프장을 상대로 한 외톨이 신세이므로 결국 “유령의 정체가 역새플”임을 알게 될지도 모른다.

골프장은 전문적인 지식으로 조성하고 관리하면 지구의 재산이 될 수 있는 곳이다. 일본처럼 좁은 국토의 경우는 귀중한 휴식공간과 숲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이 “도시의 폐기능”임과 동시에 후손에게 물려줄 “자연의 재산”임을 깨달아 소중히 생각해야 한다. 사실 나의 염려는 농약을 취급하는 사람들을 교육시켜 안전을 위한 기구와 인원을 정비하는 것이다. 그것을 위해서는 농약업계도 충분한 투자를 해야 하고 이 부분에 대한 경교야말로 매스컴에 기대하고 싶은 것이다. Y